

1 본회소식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24대 권영걸 회장, 이종복·김종선 감사 선출



본회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023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정기총회'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수담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과 유인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손

문자, 정옥란, 김소선, 김춘옥 고문 등 총회 참석을 신청한 회원들 전원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또한 재학생 대표로 초대된 미대운영위원회 김수민(20디자인) 위원장과 김지현(22디자인) 위원이 참석했다. 민수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회장 인사말과 이민주(76회화) 상임부회장의 '2022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김홍규(83응미) 상임부회장의 '2023년도 사업계획보고', 감사보고, 임원개선,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복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꼼꼼

하게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회계 및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그동안 많은 행사와 사업을 해온 임원 및 사무국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하였다. 임원개선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소선 고문이 진행하였으며 토의결과 제24대 회장으로 권영걸 현 회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 이종복, 김종선 현 감사가



선출되었다. 신임 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연락처가 3500명 이상 확보되어 이제는 본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동창회관 설립을 위해 이미 확보된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동문들의 적극적 후원을 독려하며 본회 동창회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회비조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20년간 동결됐던 연회비(3만원) 및 평생회비(30만원)를 2023년 6월 1일부터 연회비 5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이상 3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본회 후원회설립추진위원회 강인선 위원장의 미래에 대한 의욕적인 의견과 동참호소에 참석자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다.

2 본회소식

본회소식

2022년도 감사실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5월 15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본회 및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P)에 대한 2022년도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 이종복(62응미)·김종선(74회화) 감사와 (사)에스아트플랫폼 김소선(63조소) 감사를 비롯해 본회 권영걸(SAP이사장 겸직) 회장, 황현수·이민주 상임부회장, 신지영 사무차장, 박도현, 김정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와 에스아트플랫폼이 20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및 회계보고가 진행되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점검한 후, 본회 김종선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많은 행사와 사업을 열심히 해 오시는 우리들의 사랑스런 임원 및 직원들의 수고를 큰 박수로 칭찬 드립니다. 회계 및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음을 감사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총평했으며, SAP 김소선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행사와 사업을 하자 없이 잘 진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며 “관계 자료를 감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이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합니다”라고 총평하였다.

야식지원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본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말 과제전으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 야식지원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재학생들에게 각종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다. 첫날부터 매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꾸준히 동창회 사무실을 찾아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다'고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미운위 김수민(20디자인) 위원장은 “야식사업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며 “동창회와 학부생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학부생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본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말 과제전으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 야식지원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재학생들에게 각종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다. 첫날부터 매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꾸준히 동창회 사무실을 찾아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다'고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미운위 김수민(20디자인) 위원장은 “야식사업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며 “동창회와 학부생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학부생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소확행아트컬렉션



본회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위치한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2023 소확행아트컬렉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함께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 기회를 통해 회원들의 창작활동과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고 동문들에게 작품 소장 기회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수익금은 총동창회 장학기금(미대 특장장학금) 및 미대동창회 창작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상 속의 예술-Design & Craft



본회는 오는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Design & Craft 2023 일상속의 예술'을 개최한다. 이번 Design & Craft 전은 그래픽, 일러스트, 텍스타일 디자인 등의 평면 분야와 아트토이,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입체 분야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원로세대부터 새로운 감각의 젊은 세대 작가들까지 세대를 넘나들며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남가주미대동창회전

남가주미대동문회(회장 장원경/73응미) 동문전이 LA 소재 상설전시장 S-Gallery(대표 한귀희/68회화)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한 달간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6일에는 개막행사가 열렸으며, 20일에는 옥션행사가 개최되었다.

S-ARTMALL

에스아트몰은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갤러리입니다.

에스아트몰과 함께할 작가님들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함께 에스아트몰을 키워나갈 작가님들을 기다립니다.

특별 할인 가격으로 작품들을 소장하세요.

서울대동문들과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께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2023 소확행 아트컬렉션>

에스아트몰 회원분들을 위해 10-100만 원으로 좋은 작품의 소장 기회를 드립니다.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작가들이 작품 판매가를 100만 원 이하로 맞춰 기존 작품가보다 저렴하게 출품하거나,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제목처럼 적은 투자로 큰 행복을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sartmall.com

인터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정의철

다음은 지난 4월 18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이 모교 정의철(88산디) 학장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전문을 대학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이다(편집부)



Q. 미대의 세부 학문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미대를 소개하자면?

A. 미대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창작과 표현 새로운 실험이 이뤄진다. 미대만의 특징은 시각적 표현으로,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디자인, 영상 예술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한다. 시대와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질문을 시각화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간 미대는 한국의 근대적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을 양성해 냈다. 오늘날

에도 미대 졸업생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가로 활동하며 작품을 만드는 졸업생, 자체적인 공방을 차린 졸업생은 물론 유명 드라마나 영화의 연출자나, 웹툰 작가가 된 졸업생도 있다. 졸업생들의 우수한 성과 덕에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 29위를 차지해, QS 세계 대학 랭킹 30위 내에 드는 서울대의 단과대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다.

Q.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 미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A. 사람의 명령대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예술의 위기로 다가왔다. 하지만 미대는 인공지능을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할 역량을 갖춘 곳이다.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혁신이나 진보는 항상 신기술의 발명과 함께 이뤄졌다. 예컨대 카메라가 발명되며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직업을 잃었다. 하지만 화가들이 붓과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화풍이 탄생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대도 뉴미디어에 기반한 미술을 공부하는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을 개설했으며, 최근 2년간 여름 방학에 메타버스나 컴퓨

터 그래픽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공과목 개편 과정에서 컴퓨터 디자인, 인공지능 디자인 같은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Q. 올해 신입생 환영사에서 독창성과 창의성을 강조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독창성과 창의성은 무엇이며 이를 미대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A. 독창성은 시류를 나만의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내는 것이며 창의성은 그 견해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응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이다. 결국 미술가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독창성과 창의성에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미대의 모든 수업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 미대 학생들은 저학년 시기 여러 재료와 도구를 알고 다룰 수 있는 소양을 쌓아 표현력을 기른다. 고학년 시기에는 본격적인 창작에 돌입해 독창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제 간의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미대 교수들은 재료공학부와 함께 재료의 특질을 연구하거나, 자연대와 함께 식물이나 광물을 표현에 접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다른 단과대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Q. 미대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학생들에게 창작이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미대는 학생들의 즐거운 창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 자신이 예술의 길에 뜻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미대가 함께 돌파해 나가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창작을 즐겨 달라. 더불어 구성원들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다. 즐거운 창작을 위해서는 사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실현을 위한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학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관해 묻자, 정의철 학장은 “대전환의 시기에 미술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대 구성원들이 여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다.

대학신문(<http://www.snunews.com>)

인사말

미운위 위원장 김수민(20디자인)



안녕하세요, 2023년도 1학기 미술대학 운영위원장 김수민입니다. 저는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입학한 학생으로서 항상 학교생활에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문제를 느끼는 것을 보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디자인과 학생회를 구성했고, 미술대학 운영위원장을 맡아 집행부 [가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온]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교 내 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 23일에 열리는 미술대학 영상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술대학 학생

들을 위한 돛자리 대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미대동창회와 연계해 스케치여행 기프트박스를 전달했고, 5월부터 6월까지 야간작업 간식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술대학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술대학 운영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의철 교수님과 민복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스케치 여행과 야간작업 간식을 지원해주신 미대동창회 그리고 행정실과 미운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미술대학의 발전을 위해 나서준 [가온] 집행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위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술대학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생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와 조형연구소는 지난 5월 31일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특강 프로그램 제3회차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부터 주제별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김종영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박춘호 큐레이터와 독립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스튜디오헤르쯔’를 설립 및 운영, 현재 현대백화점 아트디렉터를 맡고 있는 박이랑 그래픽디자이너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미운위 집행부 구성

미대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민/20디자인)가 이지은(20디자인), 김지현(22디자인), 박예슬(23동양), 윤서영(23동양), 장윤서(23조소), 황희정(23공예) 등 6명으로 이번 학기 집행부를 구성했다. 임기는 오는 8월까지이다.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학위 청구전

모교 2022학년도 미술대학 후기 졸업전 및 석·박사학위 청구전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졸업생들이 재학기간 아낌없이 쏟아부은 창조적 노력의 결실을 찾아가 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 전시장소 : 74동 우석갤러리 및 101호(영상매체예술)

■ 전시기간 : 2023년 6월 1 - 25일 (세부일정 학과별 표 참조)

서양화과	동양화과	디자인과 연합전공 영상매체예술	조소과 공예과
6.1-4	6.8-11	6.15-18	6.22-25

서울대소식

유홍림 총장, 취임100일 인터뷰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지난 5월 11일에 취임 100일을 맞이하였다. 유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4월 26일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였다. 유총장은 '자유와 신뢰의 플랫폼, 서울대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21세기 대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서울대에서 교육, 연구, 사회공헌이라는 기존 고등 교육의 목적을 유지하는 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재정과 구성원 복지의 문제에 대한 대담에서 국가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의지 및 구인의 어려움, 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구성원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질문에는 지난해 서울대가 발표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담화문과 서울대 RE100과 같은 환경 의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학부기초대학과 지난달 출범한 기숙형 대학 LnL(Living & Learning), 입시 중 학교폭력 고려의 문제, 그리고 법인화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대담을 마무리하였다.

보건진료소 비만클리닉 신설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토대로 신설한 비만클리닉이 식단, 운동 상담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학내 구성원의 몸과 마음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비만클리닉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며 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단, 해당 비만클리닉은 체질량지수(BMI)가 30kg/m 이상인 경우, 혹은 체질량지수가 25kg/m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비만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참여 가능하다. 해당 비만클리닉은 1월부터 지금까지 학생과 교직원, 교수를 통틀어 약 75명이 참여 중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봄축제 '리오, 더 오리'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잔디광장에서 2023 봄 축제 'SNU FESTIVAL: 리오, 더 오리'가 열렸다. 각종 예술장터, 먹거리장터가 열렸으며 9일 낮에는 버스킹, 해질녘에는 리오의 음악캠핑이 잔디광장을 채워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11일 폐막제

공연에서는 바운스팩토리, 트리플에이치, 고어헤드, 서울대학교 응원단 등 다양한 동아리와 아이돌 그룹 ITZY가 무대에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번 봄 축제에서 '일회용기 없는 봄 축제'라는 다회용기 이용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환경동아리 연합회와 '축제하는 사람들'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시설관리국, 학생지원과, ESG위원회, 대학생 중심 국제 환경 단체 '대자연', 다회용기 대여 스타트업 '잇그린'에서 후원했다. 다회용기 반납은 잔디광장 곳곳에



비치된 4개의 반납함 중 하나를 택해 할 수 있었다. 잇그린 브랜드마케팅팀 김나경 팀원은 행사 기간 동안 약 9,000개의 다회용기가 회수되었으며 "이는 2,127kgCO₂eq의 온실가스, 451kg의 폐기물, 12kg의 미세먼지를 줄인 효과를 낼 수 있어 약 15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전했다.

종합마라톤 대회



지난 5월 19일 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진흥원의 주최로 '2023 서울대학교 종합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마라톤 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열린 이날 행사를 즐기며 달렸다.

도서관 별빛 영화제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도서관 5층 옥상정원에서 '제4회 도서관 별빛 영화제'가 진행됐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관람한 학생들은 좋은 분위기속에 많은 사람들과 야외에서 영화를 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도서관 봄날극장 상영회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맞아, 지난 4월 12일부터 관정관 6층 정인식소극장에서 '봄날극장: SNU인이 사랑한 필름'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최근 8년간 서울대 구성원의 중앙도서관 DVD 이용 데이터 순위와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한 13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선정된 영화들은 서울대 인기 영화, 고전 명작, 블록버스터,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등 5개 테마로 구성됐다. 이번 상영회는 서울대 구성원 누구나 선착순 입장료로 참여할 수 있어, 학생 교직원 등 다양한 관객층이 객석을 채웠다.

명예교수 사과즙 2천개 기부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월 19일 제자들의 '천원의식사' 지원을 위하여 직접 재배한 사과로 착즙한 사과즙 2천개를 익명으로 전달하며 "소소하지만 좋은 뜻이 이후 많은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과즙은 천원의식사를 이용하는 약 2천여명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큰 격려로 이어지고, 건강한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과 함께, 세계와 나란히' 심포지엄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은 지난 3월 24-5월 28일 '시간의 두 증명-모순과 순리'전을 개최하며 지난 4월 28일 전시 연계 국제 심포지엄 '전통과 함께, 세계와 나란히'를 서울대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열었다. 심포지엄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술계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지평-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통미술 연사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미래, 문명 그리고 한국미술'을 주제로 세계화 시장 속에서 한국 전통과 미술이 처해있는 현 상황을 분석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코리아웨이브, 그 길'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한국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 개최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난 5월 10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제2회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600여 명의 서울대 동문 가족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66작곡)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았으며 금난새 음악감독이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듀오(권예은, 최주하)와 서울대동문합창단, 서울대OB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로시니의 '월리엄 텔' 서곡, 사라사테의 '나바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등이 연주되었다. 100분간 이어진 공연 중 특히 동문합창단·OB합창단원 80여명이 함께한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관객이 일어나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김종섭 회장은 "동문 가족을 모시고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동창회와 서울대를 성원해 주시는 동문 가족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됐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은 이날을 "동문이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축제"라고 했다.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는 이번으로 2회를 맞는 총동창회의 문화행사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 농생대동창회(회장 서병륜) 등이 협찬금을 보내왔다. 본 행사의 행사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재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사회공헌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 또한 음악회엔 재학생 150명이 초대됐다.

신임 송우엽 사무총장, 김동규 사무차장



총동창회는 5월 1일 송우엽(79체육교육/사진왼쪽) 동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사무차장에는 김동규(80경영/사진오른쪽) 전 흥국F&B 전무가 선임됐다. 송우엽 신임 사무총장은 운동심리학 박사로서 성균관대와 국민대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왔으며, 현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ROTC동문회 사무총장, 동창골프회 단장 등을 역임하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송사무총장은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동문들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사무차장은 모교 경영학과와 모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신용평가 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스포츠심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ROTC동문회 사무총장, 동창골프회 단장 등을 역임하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송사무총장은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동문들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사무차장은 모교 경영학과와 모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신용평가 이사 등을 역임했다.

수요특강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총동창회는 지난 4월 26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수요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의에서 연사 김현철(81경영)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아래 다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집중했다. 김원장은 미국 대 소련, 미국 대 일본, 미국 대 중국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우리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에 끼친 막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수요특강은 매월 다른 연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제공한다. 지난 수요특강에서는 '파우스트의 21시간 완본판 공연'(연사-전영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한

민국: 성찰과 제언'(연사-임재준 서울대 의대교수) 등을 다뤘다. 수요특강은 총동창회 행사 중 특히 인기가 많은 행사로 해당 월 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공덕동 SNU장학빌딩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동문에게는 김원장의 책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증정했다.

교동도 국토문화기행



총동창회는 지난 4월 20일 국토문화기행을 개최해 20여명의 동문이 강화 교동도를 다녀왔다. 예로부터 교동도는 개성과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으로서 군사 요충지였다. 지금도 교동도는 북한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민간인출입통제선 구역으로, 교동대교 앞 해병대 검문소에서 여전한 군사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국토문화기행 일정에는 고구리 읍성터, 이곳이 연산군의 유배지였음을 알리는 연산군 위리안치소, 북한 실항민들이 만든 대룡시장, 그리고 교동교회 옛 예배당 등의 탐방이 포함되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 차를 타고 달을 수 있는 곳이지만 고립된 섬이었던 역사가 여전히 교동도 곳곳에 배어 있음을 이번 탐방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한편 국토문화기행은 2020년부터 기획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총동창회의 문화행사이다.

관악극회 공연



이순재 동문 주연 <리어왕>

- 일 시 : 2023년 6월 1일~18일(총16회)
- 장 소 : LG아트센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 출 연 : 이순재(54철학), 최종률(66회화) 김시번(90경영) 외
- 공연시간 : 화-금 19시 | 주말 15시, 20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 문 의 : LG아트센터 서울 1661-0017

6월 수요특강

- 일 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이정동(서울대 공대 교수)
- 주 제 : 최초의 질문: 기술선진국의 조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홍길동6월수요)

6월 등산대회

-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 산 행 지 : 청계산
- 집합장소 : 양재역 서초08번 버스 추모공원 입구
- 신청방법
 - 참가신청 :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오찬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홍길동6월등산)

6 공지사항

회비납부 안내

본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동결해 왔던 회비를 부득이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총회의결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회비구분		현행회비	조정회비	
연회비	회원	3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현행과 동일
		부회장	30만원	현행과 동일
		이사	10만원	현행과 동일
평생회비		30만원	50만원 (만 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5월 회비납부내역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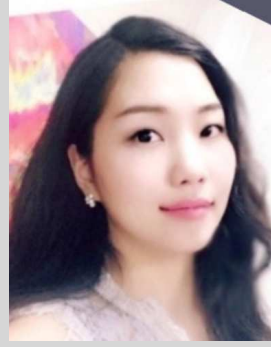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일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가 <http://snuarta.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현정(08동양) 본인상=본회 간사로 봉사하다 투병중이던 한현정(모교 박사과정) 동문이 안타깝게도 34번째 생일 이틀 뒤인 지난 5월 6일 별세했습니다. 투병중에도 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적인 작업의욕을 보였던 한동문은 올해 2월 본회 주최로 이젠은 마지막이 된 개인전을 가졌는데, 공상구(97동양) 동문 등 여러 분들의 성원으로 작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이에 한동문은 본회에 후원금을 기부, 지난 4월 모교 MT행사시 한동문 이름으로 후배 재학생들에게 간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세로		세로		가격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100*80	6,6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0*130	8,8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140*170	14,3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갤러리 탐방

공아트스페이스 (공화랑, 마이아트옥션)

공상구(97동양)

본지는 취재팀은 지난 5월 18일 공아트스페이스를 방문하여 공상구 대표와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아트스페이스란 어떤 곳인가?

55년 전 '공창화랑'을 설립해 운영하시던 아버지(공창호)가 1997년 아들인 내가 대학에 입학하자 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창'이란 이름을 빼고 '공화랑'이라고 바꿨다. 2015년부터 화랑의 업무를 줄이고 마이아트옥션을 키우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확장하면서 '아트스페이스'가 되었는데 '아트스페이스'는 '공화랑'과 '마이아트옥션'을 같이 하고 있는 건물 공간을 뜻하는 이름이다.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마이아트옥션으로 열심히 했으니 내년부터는 한국화의 기본을 잘 지키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며 다시 화랑 업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화랑을 떠올렸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는 화랑이고, 화랑을 통해서 많은 한국작가와 한국의 작품이 국내 또는 국외에 좋은 이미지로 소개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미술전문 화랑으로 입지를 다졌는데, 고미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작품을 주로 찾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거래량이 더 많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한 번에 다량 지난달에 일본에서 온 것들이 있다.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이 많다는 건 슬픈 일이다. 우리나라는 학계와 상업계의 교류가 잘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학계와 상업계가 교류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안타까웠다. 사람들은 가끔 '한국 유화는 비싼데 고미술은 싸다'고 많이 말한다. 대우를 안 해주면 비싼 작품이 출현을 안 해서 그렇다. 문화재가 꼭 비싸야 하느냐 하면 문화는 국력인데 비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화랑의 철학과 '한국적인 것'이란?

한국적인 고유의 것을 가진 작가들을 빨리 찾아서 함께하고 싶다. 한국화의 정신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만나 함께 성장하면 그들의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다. 지금 세계적인 것을 따라 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미술이라는 건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함에 있어서 작가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말고 '내가 곧 유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려나가면 그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감과 문화를 따라 그리는 순간 잘 그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뒤

쳐진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선의의 교류, 경쟁하면서 작업했으면 좋겠다. 각자 자리에서 목표를 향해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고 쉽게 유행을 따라가지 않길 바란다.

화랑을 운영하면서 의미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다면?

2013년 여름 우리는 일개 개인 화랑인데도 우리가 문화재를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것을 믿어주셔서 그런지 고려대에서 고려대박물관 소장품을 전부 보내줘서 '한양유혼'이라는 전시를 했다. 고려대 측에서는 박물관에 하루 1-2명 정도만 방문하는데 그마저도 학생들이 강의실을 찾다가 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화랑에 전시하면 하루 몇 천 명이 오기 때문에 보내주었다고 했다. 그 전시가 너무 뜻깊고 좋았다. 2012년에는 모 대학 동양학과 교수의 수묵화 500만원짜리 작품 200점이 총 10억원에 팔렸다. 수묵화가 팔린다는 것이 스스로도 안 믿기고 신기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다. 유명한 사람의 작품을 한 점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화 수묵화를 전시하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니까 매우 보람되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인데 위 2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미술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예측은 우려 또는 희망이 둘 다 있다. 21세기 들어서 20여 년간 한국 화랑이 규모 면에서는 급성장해서 자본도 많이 생기고 몸집이 커진 것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거대해질수록 한국적인 형태나 한국미술만의 장점과 내세울 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더 덩치 큰 외국에 눌릴 것이다. 전시 내용을 메뉴판이라고 했을 때 모든 갤러리의 메뉴가 똑같은 건 문제다. 지금 있는 갤러리들이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를 가도 같은 전시를 보지 않도록 '한국 미술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시장은 더 커져서 일반인들이 비행기 타고 홍콩 아트페어를 가는 경우도 있다. 그냥 아트페어에 가서 작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요즘은 인스타 등 SNS에서 전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럴 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전시를 한국에서도 하기 보다는 좀 더 안을 들여다보고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한국을 알 수 있도록 선별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외국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작가를 보고 갔다고 자국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미술에 각광 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후배와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가 국내 최고의 학교인데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한국의 미술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지식은 정말 많은데 한국미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 알지 못하면 미술 전공자로서 주변에 알려주지 못하고 해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라도 '한국미술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돼서 한명 한명이 한국미술 홍보대사가 되면 한국 미술은 금방 위상을 찾을 것이다. 적어도 서울대 미대라면 어디 가서 한국 미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동문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공대표의 마이아트옥션에서 지난 5월 25일 국보급 '백자청화오조룡문호'가 70억 원에 낙찰, 국내외 고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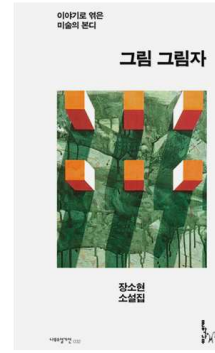
■ 공아트스페이스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62-5 충훈빌딩 5,6층 전 화 : 02-735-9938

8 회원동정

소설집 '그림 그림자' 발간 장소현(65응미)

출판사 문학나무를 통해 발간된 장소현 동문의 소설집 '그림 그림자'는 오늘날 미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28편의 글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 책은 미술의 본질과 존재 이유, 미술가의 정신적 자세, 현실적 삶과 미술의 관계, 감상자의 눈길, 미술시장과 문화권력 등의 근본적 문제들을 다각적 시선으로 꼼꼼하게 살피며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장동문은 "가장 필요한 것은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되묻고 본디 모습을



되살피는 일"이라고 하며 책을 통해 해답을 찾기보다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한다. 한편 자칭 '문화잡화상' 장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와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부(동양미술사 전공)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면서 시인, 극작가, 언론인, 미술평론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7권의 책을 펴냈고, '서울말뚝이' 등 50편의 희곡을 한국과 미국에서 공연, 발표했으며 고원문학상, 미주가톨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5회 안평안견창작상 수상 오용길(65회화)

오용길 동문이 지난 5월 11일 한벽원미술관에서 제5회 안평안견창작상을 수상했다. 안평안견창작상은 사단법인 안평안견현창사업회에서 제정하여 수여하는 미술상이다. 이번 수상에 있어 오동문을 수상작가로 선정한 것은 한국화 분야에서 왕성한 작품활동과 더불어 후진양성 및 미술문화발전에 크게 모범이 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함이었다고 세 심사위원은 밝혔다. 오동문은 같은 장소에서 제 1회 월전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더 감동이 깊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동문은 한국화의 수묵담채화부문에서 일가를 이룬 작가로



독창적 창작정신을 구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번 수상을 기념하는 초대개인전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올갤러리에서 열렸다. 한편 오동문은 국전 문공부 장관상, 동아미술상, 제 1회 선미술상, 제 1회 의재 허백련예술창작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대미술초대전, 서울미술대전, 한국전통산수화전, 2007 한국화전(1953-2007,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개최했다.

임옥상 라이브 페인팅 개최 임옥상(68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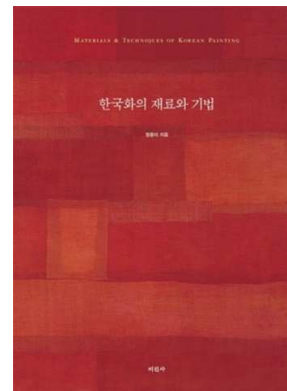
임옥상 동문이 지난 5월 16일 명지병원 로비 상상스테이지에서 101회 힐링콘서트 '임옥상 라이브 페인팅 with 허윤정&박종화 편'을 개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명지병원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겸 국악인 오정해가 사회를 맡고, 임동문의 라이브 페인팅과 거문고 명인 허윤정,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즉흥 연주로 구성됐다. 임동문이 그려낸 300호 규모의 미술작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해 온 명지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의미를 담아 병원에 기증될 예정이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회화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40여 년 간 한국 미술계에서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해왔다. 임동문은 전주대 강사, 광주교육대 교수, 전주대 미술대학 교수,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발간 정종미(76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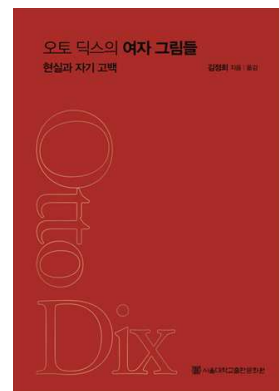
정종미 동문의 저서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이 지난 3월 22일 미진사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었다. 정동문의 저서는 전통 회화에 대한 재료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안료의 미시적 분석과 전색제에 따른 물감의 종류별 특성, 기능, 사용 방식을 담은 재료 기법서이다. 정동문은 "우리 미감의 정체성을 아는 일이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이며 이는 곧 "한국미술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말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과 디외



도네(Dieu Donne) 종이 공방 등에서 수학했다.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 재직했으며 색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전통 미술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우리 미술 속의 벽화와 불화, 민화의 조형 언어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동문은 국내외에서 2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초대 기획전을 가졌으며 2001년 '제13회 이중섭 미술상', 2012년 '제13회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했다.

'오토 디크의 여자 그림들' 출간 김정희(77회화)

김정희 동문의 저서 '오토 디크의 여자 그림들 : 현실과 자기고백'과 그간 저술한 논문을 정리한 '고야, 고다르, 보이스에서 ... 국제미술전, 한국성까지: 27개의 논문'이 지난 3월 30일 각각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과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를 통해 출간되었다. 김동문은 오토 콘젤만이 오토 디크의 여자 그림들에 관해 쓴 글 '여자들(Weiber)'에 근거해 디크 미술에서 주요 주제에 주목했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그의 여자 그림들을 당대의 현실 상황과 그것에 대한 화가의 반응 및 화가의 심리적 상황과 연결



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처럼 그의 여성관을 "니체-수용"과 연결한 것은 디크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문학 석사학위를, 함부르크대학교 미술사학과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7년 2학기 서울대학교 학술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미술사학회 회장과 현대미술학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말을 부르는 사진' 세미나 개최 이강우(83서양)

이강우 동문이 지난 5월 17일부터 29일까지 토포하우스에서 사진전 '말을 부르는 사진' 사진전을 열고 지난 5월 20일에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나 패널로는 이강우 동문과 박상우(사진사 · 서울대 교수), 박평중(사진비평 · 중앙대 교수), 노형석(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이 참여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기억의 장치로 사진이 수행하는 역할, 사진 자료가 매개하는 담론들, [사진-자료-아카이브-예술]의 확장 가능성, 풍경과 풍경 사진 지형의 확장 가능성, 사진과 예술의 사회화와 공공적 자산화의 길, 새로운 전환점에 선 사진으로 구



성되었다. 이동문의 사진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태백과 정선에 대한 사진 도큐먼트로, 과거 연탄의 원료인 석탄을 캐내던 광산이 밀집된 풍경이 담겨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3년부터 서울예대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까지 총 2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했다.

9 회원동정

'모두를 응원해' 기획전 개최 장화정(83산미)

장화정 동문이 기획한 서울상상나라 10주년 기념 기획전 '모두를 응원해'가 지난 5월 2일에 개막했다. 장동문은 본 전시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고 마음근력과 회복력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도전의 즐거움과 성취감, 서로 협동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통해 모든 어린이의 빛나는 도전과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산업미술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웅진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이후 에스디엔그래픽산업예술학교(ESAIG) 대학원에서 커



뮤니케이션예술기술고등학교(석사, DSATC)를 취득한 뒤에 어린이 전문출판사인 밀라출판사와 삼성문화재단을 거쳐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삼성어린이박물관에 합류하였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의 종료 이후, 서울시의 공공 정책에 힘입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상상나라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지역상영회 개최 전승일(85서양)

전승일 동문의 애니메이션 '오월상생 Memory of May'와 '운동화비행기'가 지난 5월 17일 아산에서 시작해 대구 오오극장, 서울 아리랑 시네센터, 천안 CGV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상영되었다. 2007년 작품 '오월상생 Memory of May'는 5월 광주에서의 학살과 저항, 공동체 정신을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2007년과 2008년 10개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번 재상영은 2020년 서울 인권영화제와 시네광주 1980 영화제에서 호평을 힘입어 열렸다. 함께 상영되는 '운동화비행기'는 2022년 홍성담 화백의 어린이, 청소년 그림책을 원



작으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극영화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Mumbai 국제단편영화제 애니메이션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으며 '금정굴 이야기'로 Venice Shorts Film Festival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운동화 비행기'로 영국 Brigh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수상했다. 전동문은 현재 오토마타 공작소 대표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비엔날레, 수묵에 스며들다'전 기획 송근영(86동양)

송근영 동문이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비엔날레, 수묵에 스며들다'전을 기획했다. 본 전시는 9월 1일 개막을 앞둔 제3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D-100일 기념 특별전시회이다. 송동문의 기획하에 마로니에공원 좋은공연안내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특별전에는 김종규, 신하순, 이윤진, 조인호, 최병국 동문 외 한국화진흥회와 한국화여성작가회 소속 2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22점의 현대수묵작품을 선보였다. 한편 이 건수(서울대 미학과 대학원) 총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개월간 수묵전시, 레지던시, 아트페어, 교육프로그램, 패션쇼, 콘서트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는 세계인의 문화축제이다. 이번 특별전 외에도 송동문은 18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International Arts Promotion Association Exhibition G20 정상회의 기념 월드아트페스티벌에 집행위원 및 작가로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선정작가전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화회 회장을 맡고 있다.

순환창작소 움직임 특강 조희경(97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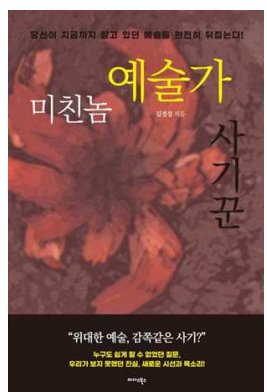
조희경 동문이 지난 3월 모교 '작품연구 : 의미와 문맥' 수업 중 특강으로 '움직임 특강'을 진행하였다. '작품연구 : 의미와 문맥' 수업은 모교 김정한 교수가 '몸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보다/느끼다/생각하다'를 다루는 수업이다. 이번 수업은 미술에 있어 시각, 뇌, 몸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뒤 조동문의 움직임 특강으로 넘어가 직접 몸의 감각이 어떻게 감각되고, 지각이 일어나고, 경험되는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



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조동문은 순환창작소를 운영하며 경쟁을 위한 춤이나 무대를 위한 춤이 아닌 스스로의 창조력을 안전하게 즐겁게 풀어내는 창구로서의 춤을 가르친다. 순환창작소는 춤을 창작하는 무용단체이자 모두를 위한 춤 교육을 하는 곳으로, 모든 이들이 몸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간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 출간 김경섭(04조소졸)

김경섭 동문의 저서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이 지난 4월 24일 출판사 미다스북스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번 신간에서 김동문은 예술이 가진 모순과 이중성을 꼬집는다. 겉으로는 항상 '다르게 보기'와 '새롭게 보기'를 요구하지만, 속으로는 기존의 권위에 지배되어 새로운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흔치 않은 이런 새로운 목소리는 그동안 권위에 억눌려 눈치 보며 고개 고덕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또한 김동문은 '보통 예



술가의 실제 삶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 같은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의 영감이라도 주고자 한다. 는 예술가로서의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이라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감상자의 입장을 고민하며 답을 찾아왔다. 그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11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4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저서 '나의 뉴욕 수업' 발간 곽아람(14미술경영협동과정박사)

곽아람 동문이 지난 2018년 선보인 '결국 뉴욕에는 되지 못했지만'의 개정판 '나의 뉴욕 수업'을 지난 4월 25일 출판사 아트북스를 통해 발간하였다. 단기 이민에 가까웠던 뉴욕에서의 시간 동안 곽동문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접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고민하고, 예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나의 뉴욕 수업'에서 뉴욕에 머물며 들었던 미술 수업, 생생한 아트 비즈니스의 세계, '프로 놀러'의 기질까지, 다양한 경험과 사유를 에드워드 호퍼 등 대도시의 흔적을 담아낸 작품들과 함께 풀어낸다. 한편 곽동



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 미술경영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뉴욕대학교 IFA(The Institute of Fine Arts) 방문 연구원으로 있었다. 뉴욕에 있는 동안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뉴욕의 아트 비즈니스 서티피컷 과정을 마쳤다. 지은 책으로는 '쓰는 직업', '공부의 위로', '어릴 적 그 책',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 등이 있다. 2003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시회 탐방

Drawings on iPad 한운성(65회화)



한운성 동문의 개인전 'Drawings on iPad'가 서울 종로구 이화익갤러리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열려 신작 아이패드 드로잉 회화 30여 점을 선보였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5월 18일 전시장을 찾아 한동문과 아이패드 드로잉을 하게 된 동기 등 이번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부 : 디지털판화 개수가 정해져 있는지?

한 : 갤러리와 한 작품 당 10점씩만 뽑기로 하였다.

편 : 유화를 그릴 때와는 어떤 다른 감동이 있었는지?

한 : 그림을 그리는 소재나 재료가 바뀔 때마다 긴장하게 된다. 나는 그 긴장이 즐겁다. 예술이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료를 넘어서 내 세계를 찾을 수 있는 적응 시간이 몇 개월 걸리는데 아이패드는 6개월 정도 적응하고 내 작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편 : 대중화에 대한 관심 또는 의도가 있었는지?

한 : 대중에 대한 관심은 가진 적이 없다. 나와 싸움이기 때문이다. 대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작품이 되어서 나온 후에 대중과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내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평면 매체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회화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해오고 있는 한동문이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작품은 기존의 작업 방식이었던 유화가 아닌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을 선보이며 작가로서 회화 매체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적이고도 필연적인 변화였

다고 할 수 있다. 한동문은 2021~2022년의 작품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등 국공립미술관 8곳에 그동안 작업한 대부분의 작품 600여점을 기증했다. 작품기증 후 다시 캔버스 앞에 서는 것이 조금 머쓱하게 느껴졌다는 한동문은, 그 시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실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집에서 작업이 가능한 유화를 대체할 매체를 찾아야 했다. 지인의 권유로 접하게 된 아이패드는 사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작가의 건강상태와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던 시기에 한동문은 새로운 소재에 대한 탐구가 쉽지 않았으므로 최근 작업인 '디지로그 풍경 시리즈'와 '꽃Flos'의 남아있는 소재를 찾아내서 아이패드 작업으로 이어나갔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디지로그 풍경'은 현대사회의 단편적이고 관습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작업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꽃(Flos)' 시리즈는 생명근원과 본질을 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꽃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는 작업이다. 한동문은 수백 가지 디지털 브러시 툴을 사용하여 작가의 캔버스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회화의 사실주의적 화풍을 디지털 드로잉에서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압(筆壓)에 따라 생성되는 디지털 브러시만의 고유한 필치는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붓 터치와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또한 오직 한 작품만 존재했던 유화의 유일성이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복수의 작품이 존재하는 변화가 생겼다. 한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장학생으로 필라델피아 타일러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모교 서양화과 교수를 지내고 현재 명예교수인 그는 동아미술제와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988년 문교부 해외파견교수로 롱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사진판화를 연구했으며 2003년에는 Asem-Duo 펠로우쉽으로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프랑스 신구상 회화를 연구했다. 또한 한국현대판화가협회장,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아시아프 심사위원장, 이동훈미술상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판화세계', '환쟁이 송', '그림과 현실(장소현 공저)' 등이 있다.

물의 추억 안영일(5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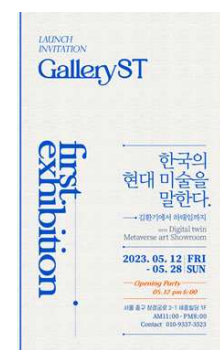
안영일 동문의 유작전 '물의 추억'(Memories of Water)이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미국 웨스트LA에 위치한 하퍼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과 빛의 유희를 안동문 특유의 팔레트나이프 기법으로 캔버스에 가득 담은 '물' 그림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2020년 12월 타계 후 안동문의 작품들은 시카고와 뉴욕에서 잇달아 소개되며 주류화단의 주목과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21년 뉴욕 하퍼스 갤러리(Harper's Gallery)에서 열린 '20년



후(20 Years After)는 작가의 '메모리얼' 연작이 세상에 최초로 소개된 특별한 전시였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1981년 일본동경국제미전 대상, 1982년 동경국제미술협회 주최 국제미전 대상을 수상하고 1958년 동아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을 비롯해 14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한국의 현대미술을 말한다 이우환(56회화) 외 6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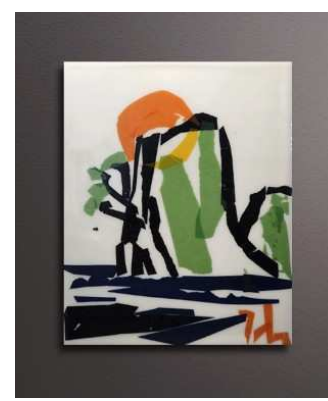
이우환 동문과 권영우(46회화, 1926-2013), 하인두(50회화, 1930-1989), 조용익(54회화), 김종학(56회화), 이강소(61회화), 심문섭(61조소) 동문이 참여한 단체전 '한국의 현대미술을 말한다'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갤러리ST에서 열렸다. 한국 현대미술을 이끈 대표작가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세계를 열어 보인 김환기, 점과 선 등으로 화면에서 동양철학의 진수를 보여주며 일본의 모노하를 이끌었던



이우환 동문, 설악산 풍경의 사계를 형상성의 회화로 쌓아 올린 김종학 동문, 추상세계의 독창성을 만다라상으로 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 색과 형으로 확립시킨 하인두 동문, 한국 현대추상미술의 태동에 이바지했던 조용익 동문, 서체적 형상으로 독자적인 여백의 세계를 열어보인 이강소 동문, 조각으로부터 회화에 이르기까지 기운생동의 경지를 보여준 심문섭 동문 등 독창적 세계로 일가를 이루며 한국화단을 이끌어 온 작가들의 대표작들로 구성되었다.

이길종 개인전 이길종(60조소)

이길종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에 위치한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의 최근 세라믹 작품들을 선보이는 열번째 개인전이다. 이승봉(홍천교육도서관장)-승열-승준씨 등 세 아들이 마음을 모아 부친이 2017년 마지막 개인전 이후 작업한 300여 점 중 20점을 선정했다. 화전민, 여인 등을 소재로 민초들의 질박한 삶과 모성, 본향 등의 주제를 입체적으로 살려온 서정성을 이번에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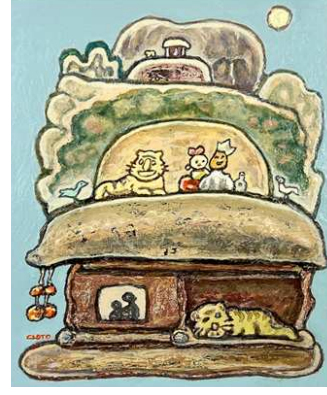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76년 제 2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하였으며 영국왕실 조각회에서 연수를 마쳤다. 2004년 춘천교대에 조각공원을 만들기도 했다. 1939년생인 이동문은 2011년 폐암을 극복 이후에도 세 차례의 개인전을 가지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강원도문화상(미술 부문), 녹조근정훈장 등을 받았고 2017년 평창비엔날레에 참여했다.

11 회원동정-전시

모든 이가 마음을 나누는 마을 이동용(60회화,1941-2011)

이동용 동문의 회고전 '모든 이가 마음을 나누는 마을'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이동용의 딸 이효정씨가 준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작고 10주년 회고전을 준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2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동용의 작품을 1970년대부터 2010년 개인전까지 총 40여점을 시기별로 3부에 걸쳐 선보인다. 모교 재학시절 작품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 도록 사진으로 소개한다. 이동용의 그림에서 돋보이는 조형언어는 '선'이다. 초기작부터



품활동에 매진하였다.

보이는 굵은 선은 프랑스 대표 종교화가인 조르주 루오의 영향을 받았다. 선을 따라서 인간의 내면과 신의 세계를 탐방하고 자연스레 전통 신화와 민담, 전설 등의 토속적인 이야기가 합쳐진다. 한편 이동용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수차례 입상하였다. 졸업 후에는 생계를 위해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2000년 퇴직 후에는 작

창작과 싫증 오천룡(61회화)

오천룡 동문의 개인전 '오천룡 회고전: 창작과 싫증'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가나아트센터 전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서울에서 작업한 추상 회화와 도블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구상 작업을 망라해 그의 60년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보여주었다. 그의 그림엔 독특한 선(線)이 그의 인장처럼 두드러져 보인다. 나이프로 굵게 그은 흰색의 선 중앙에 흠을 파고, 그 위에 상감을 새겨넣듯이 짙은 색 물감을 넣어 완성해 형태



현재까지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를 드러낸 선. 이른바 '오 라인(O Line)'이다. 1984년 작품에서 등장한 오 라인은 "형태와 색, 면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만의 방식이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1년 프랑스로 건너가 아카데미 그랑 드 쇼미에르와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물질의 서사 최인수(66조소)

최인수 동문의 개인전 '물질의 서사'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데이트갤러리에서 열렸다. 70대 후반인 최동문은 끈질이 힘들기는 하지만, 직접 나무를 깎으며 사유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 나무 작업을 만날 수 있다. 버려진 느티나무를 이용한 '장소가 되다' 연작이 전시장에 드문드문 세워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동문의 드로잉 작품도 같이 볼 수 있다. '나오다가 숨다가'는 종이 위에 흑연으로 아주 느리게 선을 그린 것이다. "천천히 그리면 그 진동



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 심장으로 연결돼요. 선이 붙어버리면 딱이 되기 때문에 실패작이 많이 나와서 종이에 미안한 작업 이죠" 골판지로 물감을 찍어내는 작업을 소개하며 작가는 "어린아이처럼 놀 때 자기도 모르는 것이 나온다"고 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독일 칼스루헤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1992년 제 2회 토탈미술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명예교수

Desert fish 김경애(68회화)

김경애 동문(레베카 김)의 개인전 'Desert fish(사막 물고기)'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Face A Gallery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정제된 한지 원료를 손으로 캔버스에 올려 말린 '한지 캔버스'를 2004년부터 작업에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설치작품 'Fish living in the desert' 등을 선보였다. 이번 '사막 물고기(Desert fish)' 전시명제에 대해서 김동문은 "캘리포니아는 낮엔 뜨겁고 밤엔 추운 광활한 사막으로 유명하다. 건조하고 적막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을 묵상하다가, 디아스포라의 삶과



현재 남가주한민미술가협회와 남가주서울대동문회멤버로 활동중이다.

연결하여 그림소재로 풀어보았다. 막막하고 아득한 사막은 우리네 삶과도 많이 닮아 있다. 사막은 또한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어서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를 발견하고, 느끼고, 나의 것으로 간직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9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제 7회 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 등을 수상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김주호(69조소)

김주호 동문의 개인전 '김주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갤러리 508에서 열린다. 김동문의 작업의 모토는 '사람'이다. 사람의 얼굴과 몸동작을 각양각색의 변형된 형태로 표현한다. 가장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간의 다양한 내적 감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작품에 인위적이거나 가식이 없다. 삶의 긍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듯한 작품 속 얼굴은 고뇌와 번민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 재치와 위트의 미학이다. 이는 한국전통미술에서의 해학적 표현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이려는 그의 노력



립미술관, 소마미술관, 김포국제조각공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기도 하다. 주제는 '사랑'이다. 가족에 대한 남녀 간의, 내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은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번 개인전을 포함 총 21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김동문의 작품은 초, 중, 고 미술교과서에 미술교육의 표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김포국제조각공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전갑배 개인전 전갑배(71응미)

전갑배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꽃우물 갤러리에서 열렸다. 오랫동안 자연의 생동감과 한국의 미를 탐색해 왔던 전동문의 그림세계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 자연으로의 회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작품의 저변에는 항상 한국적인 조형성, 토속성이 깔려있다. 전동문은 무속신화 '당금애기, 바리데기'를 국·영문 책으로 출판하여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시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인전, 출판, 광고, 벽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많은 이미지를 꾸준히 발표하였다. 1996년에는 컴퓨터 표현기법을 실험하여 한국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무속신화 '당금애기'와 '바리데기'를 기획 및 출간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와 동 대학원 졸업 이후,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장, 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12 회원동정-전시

無, Be Nothingness 배형경(74조소)

배형경 동문의 개인전 '無, Be Nothingness'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시몬에서 열렸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온 배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벽 앞의 인간', '또 다른 인간', 그리고 '같음'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선보였다. 배동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각각 다른 키의 사람들은 디디고 선 바닥의 다른 높이 때문에 동등하지 않은 눈높이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다른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가지는 동일성은 모든 것이 무(無)로 향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



리 모두 같음을 인지하고 선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편 배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2010년 김종영미술관의 '오늘의 작가'로 선정됐으며 2020년 김세중조각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회조각동산, 프랑스 가르까손느시청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머신러닝 미술사 공부 심철웅(78회화)

심철웅 동문의 개인전 '머신러닝 미술사 공부'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CICA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의 시리즈는 서양 미술사를 중심으로 한 현대 미술의 거대한 담론을 사람이 아닌 AI가 습득해 가면서 만들어 내는 진실해 보이지만 왜곡되고, 현실적으로 보이나 기이하기도 한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질감을 담는다. 미술을 전공하게 되면 거치는 일방적 미술사 습득과정에 대한 의문과 비판적 시각은 감정이 없는 알고리즘의 시점에서 프로세싱을 거치며 우연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문화와 사회 속 권력투쟁(power struggle)에서 오는 무거움과 우울함을 오히려 가벼움과 무심함으로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준다. 한편 심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화과 석사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학교 대학원에서 Visual Communication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덕여대 디자인학부 컴퓨터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미 한 송이 이수경(83회화)

이수경 동문의 개인전 '장미 한 송이'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가나아트 나인원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도자기 파편을 금박으로 재조합하는 독창적 방식의 '번역된 도자기' 연작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이 근래 천착하고 있는 장미 모티프의 신작 회화, '오! 장미여' 연작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다. 오로라를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추상 화면에 탐스럽게 피어난 장미는 전생과 이생, 의식과 무의식,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



놓여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20 마시모 데 카를로, 런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9 카포디몬테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하였다.

젯빛과 푸름 사이 조은령(87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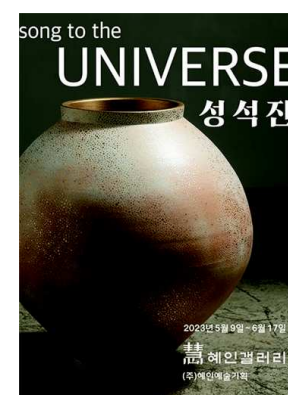
조은령 동문의 개인전 '젯빛과 푸름 사이'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아트레온갤러리에서 열렸다. 퍼져나가는 먹으로 모든 색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던 조동문은 이번 전시에서는 직설적인 어법의 초록으로 식물들을 그렸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색에 집중했다. 나의 머리는 비우고 나의 눈을 따라 식물의 구체성을 드러냈다. 즉 내가 본 개별의 몬스테라, 야자수...각 개체의 일대기 속의 푸르름으로 초록이 읽혀지길 바랐다. 즉 여기의 푸르름은 봄이며 미래가 내재된 현재 - 꿈을 품은 푸릇함이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991년 제2회 MBC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 서울 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과 영은 레지던시에 선정되었다. 1994년 관훈갤러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전 이후로 13회의 개인전, 다수의 단체전에 작품을 내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조은정 작가와 공동저술한 '혼자 읽는 세계 미술사(2015, 다산초당)'가 있다.

Song to the UNIVERSE 성석진(90공예)

성석진 동문의 개인전 'Song to the UNIVERSE'가 지난 5월 9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헤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성동문은 불완전한 형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이내믹과, 작품 완성에 이르도록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과 그 변수들을 극복하고 컨트롤하면서 만들어 가는 작업에 매료되어 17년간 달항아리 작업에 정진해 왔다. 특히 이번 전시의 'UNIVERSE'라는 콘셉트는 성동문이 별들을 관찰하며 천체의 신비와 우주에로의 동경을 달항아리에 표현하고자 했던 노력을 담고있다. 생성과 소멸의 일생을 통해 존재하는 별들



속, 오로지 '달'에 머물지 않고 그 곁의 다른 별, 또 그 곁의 다른 별로 이어지는 공간의 확장성과 시간의 영속성을 담아 시공을 초월하여 마침내 작가의 이상이 집약된 'UNIVERSE'가 탄생한 것이다. 한편 성동문은 모교 도예전공을 졸업한 후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도예전공을 공부하였다. 이후 도예공방 '석진'을 운영해왔다. 현재는 모교 도예과, 건국대학 예술문화대학 공예과(겸임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 공예과에 출강하는 등 후학 양성과 더불어 꾸준한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메아리와 서리의 도서관 박선민(92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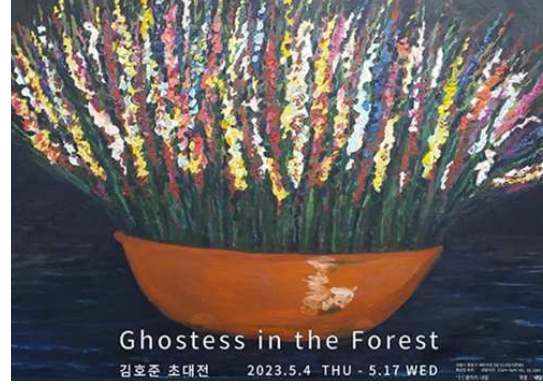
박선민 동문의 개인전 '메아리와 서리의 도서관'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페리지갤러리에서 열렸다. '메아리와 서리의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복수의 시간이 교차하는 공간이며, 서로 다른 속도와 다른 지속성을 가진 것들의 집합체'임에 주목해 나온 개념이다. 작가가 추구하는 미래의 도서관인 이곳은 다층적인 정보의 층위 사이를 자유롭게 휘저으며 끊임없이 길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이



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 후 독일로 이주하여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의 로즈마리 트로켈의 지도하에 마이트터슐러를 받았고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사진, 영상, 드로잉, 공간 설치, 출판,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작업을 선보인다.

Ghostess on the Forest 김호준(92서양)

김호준 동문의 개인전 'Ghostess on the Forest'가 지난 5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내일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숲의 미스터리를 이미지화하면서 인체를 같이 담아 보는 다소 낯선 시도를 했다. "유령으로 불리든, 귀신으로 불리든, 인간의 혼령은 이미지화하는 인종, 장소, 문화,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귀신이 여성으로 대변되지만 서양의 유령은 남성적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김동문은 귀신의 이미지인 Ghostess를 마치 Hostess처럼 유사한 어감을 지녔다고 느끼고, 숲이 지니는 안식과 경외의 상반적 이미지는 Ghostess의 상반적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다 한다. 그는 이번에 선보인 작품에서 검투사의 칼을 닮은 뾰족한 잎



을 가진 꽃 '글래디올러스'를 소재로 선택했다. 이 꽃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전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동문은 글래디올러스를 통해 우리의 귀신과 서양의 유령이 보여주는 우연한 유사성을 탐색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졸업 후 동대학원 서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부터 1년간 1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2009년부터 파주출판단지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하이 앤 드라이 서상익(97서양)

서상익 동문이 지난 4월 14일 부터 5월 26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갤러리퍼플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하이 앤 드라이' 연작, '화가의 성전'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전시제목 '하이 앤 드라이'는 밀물에 해안으로 밀려왔다가 썰물 때 모래톱이나 갯벌에 갇혀 말라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번영과 발전을 거듭해오던 우리 사회가 경제, 정치, 공동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체되고 고립됐으며, 작가로서 한 개인의 작업 역시 그림에 대한 깨달음과 좌절이라는 밀물과 썰물의 교차 위에 있다는 생각을 표현한다. 서동문은



'하이 앤 드라이'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신념임을 강조한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국내외에서 총 10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 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었으며, 현재 갤러리퍼플 스튜디오에 입주해 작업 중이다.

사계의 방 선우항(91서양)

선우항 동문의 개인전 '사계의 방'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에서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린다. 선우동문은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서 보는 듯한 여름의 바다, 잔설 사이의 물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봄의 계곡,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숲을 프레스코(습식 석회벽화)기법으로 담은 작품들을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의 네 개의 방에서 각 계절의 감동을 담은 작품들로 전시한다. 'Blue', 'Forest with Snow' 등의 작품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작가는 자연의 재료기법인 Fresco를 이용하여 인간이 바라본 자연의 순수한 감동을 펼쳐보인다. 선우동문의 프레스코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다. 벽화는 그것이 시작되는 동기로부터 작업방식과 기술, 그리고 소통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유화나 드로잉, 소형 브론즈상 같은 뮤지엄 피스(museum piece)들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벽화의 목적은 공적공간을 지향하지만, 이번 전시에는 소품도 전시하여 사적공간에서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선우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Inonaco의 재해석을 통한 Fresco기법의 현대적 확장에 대한 연구로 미술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1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모교 동양화과 벽화기법 강사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후원광고



선우항 개인전
사계의 방

6.15-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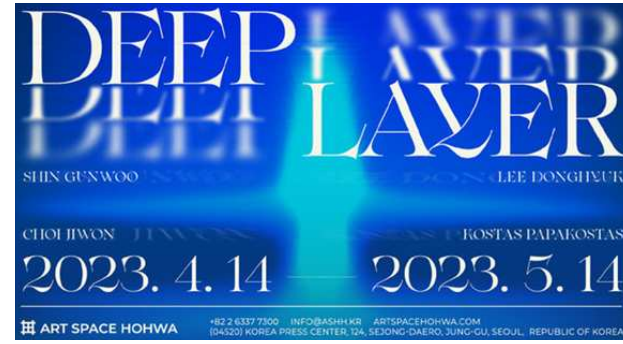
Art Space Qualia
AM11:00-PM8:00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65-3 (Tel 02-379-4648)

14 회원동정-전시

딥 레이어 신건우(97주소)

신건우 동문이 참여하는 아트스페이스 호화의 기획전 '딥 레이어'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심해처럼 질푸른 색을 작품의 주요 컬러로 사용한 회화와 조각을 한 데 모은다. 전시명 '딥 레이어'의 뜻인 심해는 육지의 삶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 현실의 이분법적 경계를 무너뜨린다. 신동문은 종교적 모티브를 녹인 인물상과 좀먹은 듯한 형상 조각에 울트라 마린 컬러의 섬유질을 곱게 분사 채색해 존재와 부재의 공



존을 나타낸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슬레이드예술학교 조소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6회의 주요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 출품하였으며, 2008년 영국 Merzbarн 레지던시 등에 선정되었다.

거인 김민애(00주소)

김민애 동문의 개인전 '거인'(Giant)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앤제이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 혹은 조각을 다루는 작가로서의 고민뿐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뒤엉켜 있다. 김동문은 '거인'을 통해 삶의 알레고리를 담아 내고, 늘 어딘가에 의지하고 기댈 존재를 만들어내 소망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등 매 순간을 생존하고 있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고백한다. 전시가 열리는 원앤제이갤러리는 크게 3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



하층에서 '거인'을 만들기 위한 작가의 리서치 과정을 엿볼 수 있다면, 위층에서는 그 사유가 본격적으로 시각화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왕립예술대학 조소과에서 석사, 옥스

포드대학에서 순수미술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총 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주요 단체전에 참가했다.

롱기누스의 숲 김성국(04서양)

김성국 동문의 개인전 '롱기누스의 숲'이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서울 강남구 갤러리LVS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의 작품은 농구선수와 격자무늬 숲, 콜라주와 비너스, 해변가 풍경과 만화 캐릭터 등 다차원의 이미지가 해체하고 결합한다. 김동문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작품 주제는 '관계'이다. 예전에는 주로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했다면, 이번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더하여



캔버스 안에서 여러 장르 사이의 관계를 더 다양하게 실험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졸업 후 영국왕립예술학교 서양화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 영국 전역의 석사 졸업생 중 최고가에 작품을 판매해 영국 일간지 Telegraph에 소개되었으며, 영국 미술잡지 Elephant (issue 35)가 선정한 영국 전역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석사 졸업생 10인 안에 들었고, 유화 장르로는 유일하다.

노이즈 게임 한재석(10주소)

한재석 동문과 김수영 작가의 2인전 '노이즈 게임'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space xx에서 열렸다. 두 작가는 작업의 주요 키워드인 알고리즘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 전시장을 가변적인 공간으로 구현한다. 한동문의 노이즈 작품은 전시장에 수집한 노이즈를 재료로 다소 기괴한 형상의 몸통을 한 조형물과 AI에서 추출한 이미지와 결합해 백색 소음에 가까운 사운드로 출력된다.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전시장의 노이즈를 수집해 편집한 사운드와 전시 기간에 수집되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노이즈



가 합쳐져 다양한 변주를 이루며 전시장을 아우른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예술대학의 대학원에서 사운드아트과(MFA) 석사과정을 마쳤다.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와 모노하(Mono-ha)에 대한 관심과 영향으로

물리적인 규칙들이나 시스템화된 기계장치들을 사용하여, 조각과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작업을 해왔다.

추상/하기; Abs/tract 권재나(10서양)

권재나 동문이 참여하는 3인전 '추상/하기; Abs/tract'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3인전은 권재나, 조현선, 차승연 등 추상을 탐구하는 작가들이 모였다. 권동문은 회화와 입체를 넘나드는 작가로 입체 작품인 '언폴딩' 시리즈를 통해 차원, 평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성을 제시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권동문의 상상력은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지닌 언폴딩 입체 작품으로 재현됐다. 이번 전시는 권동문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세계의 연장선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레이어의 탐구를 3차원으로 한층 더 확장한다. 그녀가 보여주는 작품 속 접히고 펼쳐진 구조물은 자유의 반영이자, 추상이라는 장르를 통해 권동문이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과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평면 회화뿐 아니라 부조 작품을 동시에 다루는 작가인 권동문은 추상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이를 표현하며 파생되는 형태, 색에 주목한다.

평범한 ■씨의 휴가 현승의(11동양)

현승의 동문의 개인전 '평범한 ■씨의 휴가'가 지난 5월 5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금호미술관 1층에서 열린다. 현동문은 2022년 제20회 금호영아티스트로 선정되었으며, 본 전시는 매년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금호영아티스트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현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고향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관광 자본의 어두운 측면들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가상의 인물 '■씨'의 제주 휴가를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구성하여 환상의 섬 제주에 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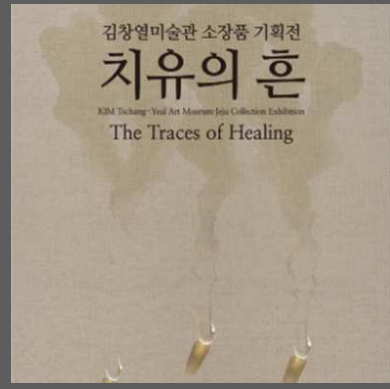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춰낸다. 현동문의 작품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한편 현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다수의 전시에 참여해 왔으며, 작년 광주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에 이어 올해 인천아트플랫폼 14기 입주예술가로 선정되어 이후에도 활발한 작업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6월의 전시



시간/물질:생동하는 뮤지엄

신미경(86조소)
3.2 - 6.10
스페이스 씨



치유의 흔

김창열(48회화, 1929-2021)
3.7-7.9
김창열미술관



빛의 전언

김인중(59회화)
3.16-12.29
KAIST 미술전시장



심문섭: 시간의 항해

심문섭(61조소)
3.17 - 6.25
경남도립미술관



전환기, 경계에 선 김종영

김종영(명예회원, 1915-1982)
4.7-6.18
김종영미술관



Lovely People

김주호(69조소)
4.18-6.24
갤러리508



삶의 노래

서용선(75회화)
4.20-8.30
더갤러리138



소녀와 레후아

김상경(87서양)
5.1-7.31
호암교수회관



백현옥展

백현옥(58조소)
5.2-7.23
모란미술관



추상에 관하여

윤동천(81회화)
5.3-6.16
갤러리ميم



평범한 ■씨의 휴가

현승의(11동양)
5.5-6.11
금호미술관



Song to the UNIVERSE

성석진(90공예)
5.9-6.17
헤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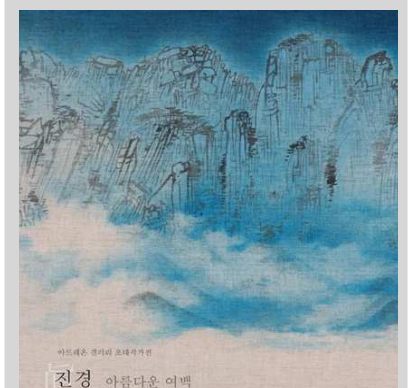
Auspicious Dream

김덕용(81회화)
5.11-6.30
SOLUNA FINE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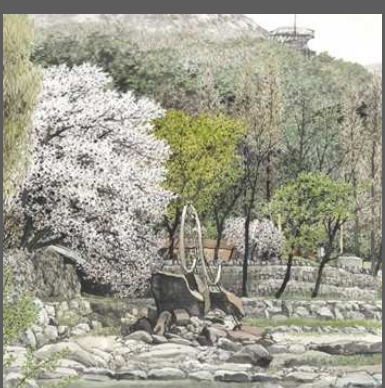
신문

임장순(03동양졸)
5.13-6.10
오재미동갤러리



진경 아름다운 여백

김현철(79회화)
5.17-6.8
아트레온갤러리



마음을 담은 풍경, 안양

오용길(65회화)
5.23-6.18
평촌아트홀



성기점 개인전

성기점(58회화)
5.24-6.4
세종뮤지엄갤러리



화필인생

박노수(46회화, 1927-2013)
5.26-2024.3.31
박노수미술관



진주

함미애(81회화)
6.7-6.13
갤러리SOM



사계의 방

선우항(91서양)
6.15-6.27
아트스페이스 쉐리아